배우 류준열과 김영식 캐딜락코리아 대표이사가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캐딜락하우스에서 캐딜락의 새로운 디자인과 기술 적용한 플래그십 세단 'REBORN CT6'를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캐딜락 신형 '리본CT6' 사전계약

3.6ℓ 6기통 가솔린 직분사 엔진
최고 334마력, 39.4kg·m 성능
3개 트림 출시… 8880만원부터

캐딜락 양산형 플래그십 세단 '리본(REBORN) CT6'가 국내 최초로 모습을 드러냈다.

캐딜락은 11일 서울 강남에 있는 캐딜락 하우스 서울에서 CT6의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리본 CT6를 국내 최초로 공개하고 사전계약에 돌입했다. CT6는 지난 2016년 국내 출시 이후 캐딜락의 성장세를 이끌어 온 모델이다.

리본 CT6는 기존 CT6보다 40㎜이상 길어져 5227㎜에 달하는 전장과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이어지는 바디라인을 자랑한다. 전폭은 1880㎜, 전고는 1473㎜다.

차량 내부는 1열, 2열 시트 모두 최고급 프리미엄 가죽으로 제작됐다.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20방향 조절이 가능하고 전 좌석 마사지 기능이 탑재돼 장거리 운전에서도 피로감을 줄여준다.

리본 CT6는 개선된 3.6리터 6기통 가솔린 직분사 엔진을 장착해 최고출력 334마력, 최대토크 39.4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캐딜락 세단 최초로 하이드로매틱 자동 10단 변속기를 장착해 전자식 변속 레버 시스템, 20인치 프리미엄 휠, 최첨단 4륜 구동시스템 등을 갖췄다.

또한 노면을 1000분의 1초마다 감시해 기민한 서스펜션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주행 시 조향 각도에 따라 뒷바퀴를 함께 움직여 회전반경을 최소화 하는 '액티브 리어 스티어링' 등 주행 보조 기술이 더해졌다.

이밖에 차선 유지 및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전후방 추돌경고 및 오토 브레이킹,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의 첨단 안전사양을 탑재했으며 정속주행 시 2개의 실린더를 비활성화해 연료 효율성을 높여주는 액티브 퓨얼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적용했다.

한편 리본 CT6 판매가는 개별소비세 인하 분을 반영해 ▲스포츠 8880만원 ▲플래티넘 9768만원 ▲스포츠 플러스 1억 322만원 등 3개 트림으로 출시되며 11일부터 사전계약에 돌입한다.

/정연우 기자 ywj964@

볼보 360c

도요타·볼보 '2019 퓨처 모빌리티' 수상

한국과학기술원
45종 콘셉트카 대상 심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조천식녹색교통대학원은 '2019 퓨처 모빌리티' 상의 최종 수상 모델로 볼보 360 C, 도요타 e-팔레트(Palette), 도요타 콘셉트-i 워크(WALK)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수상작을 선정한 '퓨처 모빌리티'상은 세계 자동차 전시회에 등장한 콘셉트카 중에서 미래 사회에 유용한 교통기술과 혁신적 서비스를 선보인 최고의 모델을 선정하는 상이다. 승용차(Private), 상용차(Public & commercial), 1인 교통수단(Personal) 등 총 세 분야로 나누어 수상작을 선정한다.

이번 '2019 퓨처 모빌리티'상 승용차 부문에서 최고상을 받은 볼보 360c는 완전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단거리 비행수요까지 대신하겠다는 야심적 서비스 목표와 철저하게 추구한 안락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상용차 부문 최고 콘셉트카인 도요타 e-팔레트는 이동식 병원, 호텔, 상점, 푸드트럭 등으로 응용할 수 있어 이동성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평을 받았다.

1인 교통수단 부문에서는 도요타 콘셉트-i WALK가 다른 개인용 이동수단보다 더 정교한 사용자 환경과 인공지능 탑재, 뛰어난 완성도 등으로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이번 심사에는 영국 BBC 탑기어 매거진의 편집장 찰리 터너, 독일 카매거진의 게오르그 카처 등 한국을 포함한 11개국 16명의 자동차 전문 기자들이 참여했으며 지난해 공개된 45종의 콘셉트카를 대상으로 3개월여에 걸쳐 심사를 진행했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차 '신형 쏘나타'에 보스 사운드 시스템 탑재

12개 스피커로 고객감성 만족

중형차급 최초 프리미엄 스피커
공간 재해석… 스피커 배치 최적화
보스 특허기술 '센터포인트' 적용
다채널 서라운드 입체음향 변환

현대자동차가 새롭게 출시하는 신형 쏘나타에 보스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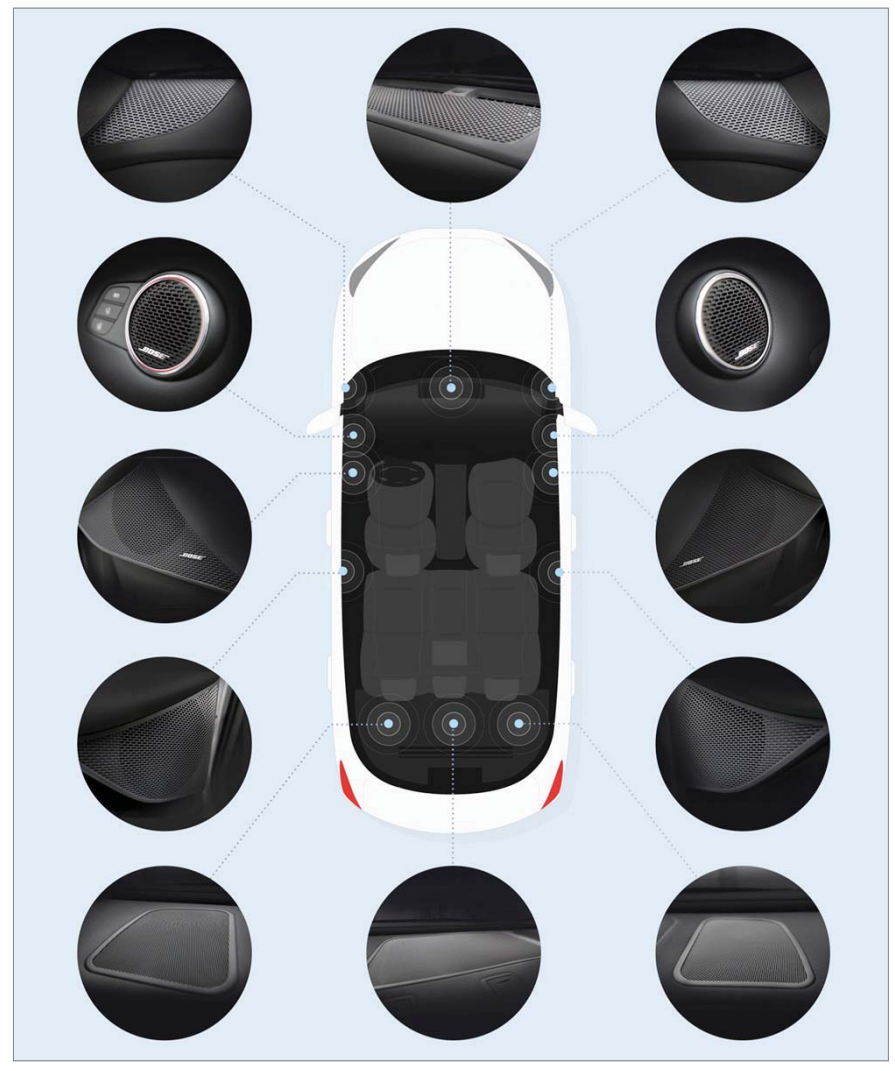
현대차는 11일 보스와 협력을 통해 개발한 고성능 사운드 시스템을 신형 쏘나타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위 가격대 모델인 '인스퍼레이션' 트림에 기본 장착되며, 다른 모델에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현대차와 보스가 협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사의 협력은 차량의 감성 품질 요소로 점차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오디오·사운드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림으로써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대차와 보스의 사운드 전문 엔지니어들은 차량 내 음악을 예술가가 애초 의도한 방식 그대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마침내 소리를 넘어 감동을 전달하는 고성능 사운드 시스템을 완성해 냈다.

우선 신형 쏘나타에는 기존 LF쏘나타에 적용된 8개(기존 프리미엄 사운드 기준) 스피커보다 4개 더 많은 12개의 스피커가 적용돼 탑승자에게 한 차원 높은 사운드 경험을 제공한다. 현대차가 중형 차급에 12개의 프리미엄급 스피커를 적용하는 것은 이번 신형 쏘나타가 처음이다.

양사 사운드 엔지니어들의 지속적인 테스트와 실내공간에 대한 재해석 과정 등을 거쳐 스피커 배치를 최적화했으며, 높은 볼륨의 고출력 사운드도 탑승자의 귀에 거슬리지 않는 편안한 음질로 재생해 준다.



신형 쏘나타 보스프리미엄 사운드 배치도.

스피커는 각각의 음역대로 세분화돼 있으며, 이들의 조합을 통해 원음 그대로의 풍성한 사운드를 구현한다.

신형 쏘나타에 적용된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보스의 특허 기술인 '센터포인트(Centerpoint)'가 적용됐다는 점이다. 이 기술은 2개 채널의 스테레오 음원을 차량 환경에 적합한 다채널의 풍부한 서라운드 입체 음향으로 변환한다. 하나의 좌석에만 집중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기존 서라운드 기능과 달리 모든 차량 탑승자들이 소리의 중심에서 음악을 듣는 듯한 경험을 제공해 준다.

현대차 인포테인먼트개발센터 추교웅 상무는 "신형 쏘나타에 보스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돼 고객들께 감성을 만족시키는 음향 시스템의 진보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현대차는 고객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어 줄 다양한 협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창립 20주년' 르노삼성, 6년만에 새 브랜드 캠페인

'조금 다른 특별함' 테마
박효신·박성연 광고 출연

르노삼성자동차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브랜드 캠페인 '조금 다른 특별함'을 시작하며 브랜드 광고 영상과 캠페인 마이크로 사이트를 오픈했다.

11일 르노삼성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조금 다른 특별함'을 테마로 정서적 공감대 강화를 통해 소비자들과 르노삼성만의 브랜드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별 제품이 아닌 르노삼성 브랜드를 위한 캠페인은 2013년 이후 6년만이다.

브랜드 캠페인의 주제인 '조금 다른 특별함'은 르노삼성이 지난 20년 동안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구축해 온 제품, AS, 세일즈 등 여러 분야에서의 남다른 가치들을 보다 현재 고객들의 관점과 언어로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르노삼성 브랜드 캠페인 광고에 출연한 가수 박효신.

르노삼성 브랜드 캠페인을 위해 제작된 광고 영상에는 가수 박효신과 대한민국 재즈 1세대를 대표하는 보컬리스트 박성연이 함께 출연해 '조금 다른 특별함'이라는 브랜드 캠페인의 주제에 의미를 더했다.

르노삼성 브랜드 캠페인의 마이크로 사이트를 방문하면 광고에서 이야기하는 르노삼성의 조금 다른 특별함이란 주제가 르노삼성 제품과 서비스 등에 실제 투영돼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고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4월 30일까지 마이크로 사이트를 통해 진행된다.

/양성운 기자

'LCC 막내' 에어서울, 올 흑자전환 나선다

항공기 2대 추가 도입 추진
中·동남아 등 주요노선 확대

저비용항공사(LCC) 업계 '막내' 에어서울이 올해 흑자전환에 나선다.

에어서울은 지난해 매출이 2017년 1084억원에서 2215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2017년 260억원 적자에서 2018년 16억원 적자로 손실을 대대적으로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에어서울은 2017년 하반기부터 동경, 오사카, 홍콩, 괌에 이어 2018년에도 다낭, 후쿠오카, 오키나와, 치토세 등 주요 노선에 본격 신규 취항하며 LCC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도 항공기 2대를 추가로 도입해 중국과 동남아 등의 주요 노선의 신규 취항을 계속 확대함으로써 네트워크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제주 노선의 국내선 취항도 검토 중이다.

또 탑승객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도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